배민·요기요 입점 음식점 실태조사 두부제조업 소상공인 생계업종 추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개최
올해 업무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이달곤 동반위원장이 동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두부 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다.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안에 '동반성장 2.0'도 새로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2.0으로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로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신(新)갈등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 동반성장 2.0을 마련해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울산에 창업 요람 '스타트업 허브' 오픈

정부예산 31억5000만원 투입
오영주 장관 방문, 간담회 열어

울산광역시에 스타트업 요람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고 허브 입주기업 등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에 마련한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3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4층),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5층), 스타트업 벤처투자존(6층)으로 꾸몄다. 허브가 자리잡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성공한 선배 기업가인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이 기부한 330억원을 포함해 총 532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스타트업 허브 개관식에는 오 장관을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KCC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협력 혁신 창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자산이 후배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이후엔 울산에 있는 스타트업 6개사를 포함해 울산시, HD현대중공업, 지역 AC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요기업과의 협업 확대 방안,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견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 B2G(기업과 정부·공공기관간 거래) 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창업·벤처기업이 지역 내 수요기업과 협업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중기부도 스타트업의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창업기업이 겪는 규제·자금·판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KCC, 페인트 색상배합·조색 5분만에 '뚝딱'

'KCC Smart 2.0' 신기술 선봬
대리점서 색상구현 기술 상용화

KCC가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현장에서 바로 페인트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상용화를 시작했다.

'KCC Smart 2.0'으로 명명한 신기술은 KCC가 2023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KCC Smar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1일 KCC에 따르면 2023년 3월 대리점에서 페인트 색상 배합 설계부터 실제 조색까지 공정을 최대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AI기반 색상 설계 시스템 KCC Smart를 개발해 대리점 경쟁력과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색상코드가 없는 색도 대리점 현장에서 바로 색을 측정(측색)하고, 조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KCC Smart 2.0'에 적용했다.

원하는 색상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도 즉석에서 AI측색기로 측정하면 'KCC Smart 2.0'으로 자동 입력되고, AI배합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색상 배합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CC페인트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색상코드 미상인 색을 페인트로 구현하기 위해선 여러 프로세스로 인해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KCC Smart 2.0' 활용 시 5분여만에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KCC Smart 2.0'의 측색 기능을 활용해 이미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中企 기술거래 활성화·혁신성장 돕는다

기보, 기술거래 기반사업 참여사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기보는 기술거래 시장 내 수요·공급정보를 연계해 기술도입 희망기업이 우수기술을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기술보유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서는 연간 300개의 기술설명자료(SMK)를 제작해 기술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SMK를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에 공유해 기술거래가 이뤄질 경우 정보공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도입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대기업과 협업과제 수행 스타트업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총 50곳… 사업자금 최대 1.2억 지원

대기업이 내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협업의 장이 올해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50곳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한 창업기업인 시리에너지는 현대코퍼레이션측에서 제공한 태양광 유리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실리콘 소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성공했다.

또 주식회사 두왓은 호반그룹과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과 연계해 체크인·아웃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한 호텔형 키오스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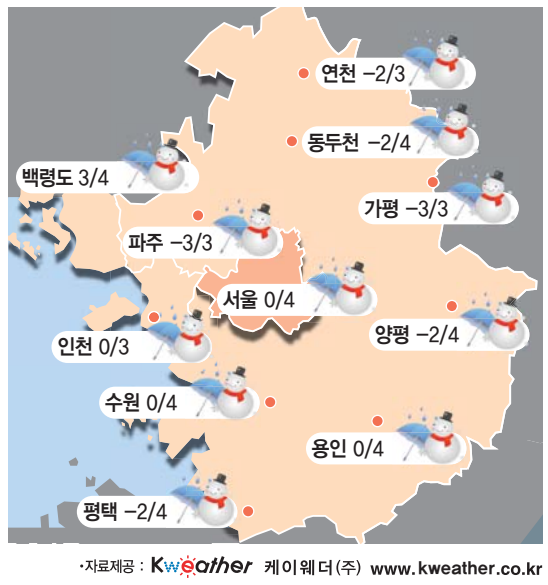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5 | 해짐 / 18:08

2월 12일 (水)
음력 : 1월 15일

수도권 날씨 0~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항공기 사고 잇따르는 美, 이번에는 공항 주기장 경비행기 충돌…최소 1명 사망
▲팔 자치정부, 유엔과 가자 재건사업 위한 8000만달러의 MOU체결 /사진 뉴시스
▲예멘 정부군, 석유산지 마리브에서 후티군과 교전…2명 죽고 부상병 다수
▲세계 최대 빙산, 다시 움직이기 시작…펭귄 떼죽음 우려
▲트럼프 국제원조처(USAID) 폐쇄에 연방 공무원· 단체들 법원중지 소송과 시위
▲러군 우크라에 밤새 무인기 77대와 탄도 미사일 공격…키이우 등 폭격